

“사우디 강팀 상대 긴장보다는 설렘... 새 역사 쓰겠다”



광주FC의 부주장인 김진호(왼쪽)가 26일 사우디 알 힐랄과의 경기에서 후회 없는 플레이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26일 오전 1시 30분 알 힐랄과 아침 8강 부주장 김진호 “후회없이 뛰며 팀 승리 역할 할 것”

“불가능?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광주FC의 ‘부주장’ 김진호가 기대감으로 또 다른 도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다움에서 알 힐랄(사우디)을 상대로 24-25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K리그 시민국단 사상 첫 8강이라는 기적 같은 업적을 이뤘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광주는 ‘가능’으로 바꿔 사우디에서 눈길 끄는 경기를 치르게 됐다.

첫 경기부터 사우디행까지 모든 게 김진호에게는 특별하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우디 여정도 김진호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됐다.

광주는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사우디로 이동했다.

김진호는 “비즈니스석을 탄 것 자체가 처음이라 축구 열심히 하길 잡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웃음). 팬들도 인천 공항에 많이 나와주셨고, 사우디에서 환영식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이라 설레고 긴장도 했다”고 말했다.

알 힐랄이라는 특급 상대와의 대결을 앞두고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크다.

김진호는 “이제 시차 적응도 거의 다 한 것 같고, 저녁 되면 날씨도 덥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컨디션은 좋다”며 “워낙 강한 팀이라 볼게 돼서 뭔가 긴장감은 없는 것 같다. 설렘이랑 기대감이 큰 것 같다. 6만 명 넘게 경기장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긴장이 될 것 같기는 하다”고 이야기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사우디팀의 경기인 만큼 관중석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관중의 기

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진호는 앞선 여정을 생각하면서 선수들과 또 다른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진호는 “주장인(이)민기형부터가 우리는 지금도 광주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8강에서도 못 할 게 없다고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수비 핵심인 김진호는 부주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 생각이다. 그는 광주의 ‘싸움닭’으로 그라운드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김진호는 “밖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게 없는데 운동장 들어가면 확실히 부주장으로 책임감도 드는 것 같다. 작년에는 앞뒤 안 가리고 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상황 보면서 싸우기도 한다(웃음)”며 “분위기도 역할도 해야 하는데 감독님께서 장난스럽게 주양 컨설팅을 10분 만에 퇴장시키라고 하셨다. 그만큼 상대를 힘들게 하라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큰 경기를 앞둔 김진호와 광주 선수들에게는 든든한 12번째 선수들이 있다. 경기가 열리는 26일 광주e스포츠경기장(조선대학교해오름관)에서 단채관람 응원전이 펼쳐지고, 직접 사우디까지 날아온 팬들도 많다.

김진호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 모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광주 축구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며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좋은 경기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김여울 기자 wool@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 경기에서 1회 말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후 시즌 세 번째 3안타... 1득점도

샌프란시스코, 밀워키에 4-2 승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의 외야수 이정후(26)가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를 달성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 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4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전날 밀워키전 5타수 무안타로 0.315로 내려갔다가 이날 다시 0.333으로 상승했다.

출루율 0.388, 장타율 0.581을 기록한 이정후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0.969가 됐다.

이정후가 이번 시즌 3안타 경기를 한 것은 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 10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MLB 데뷔 시즌이었던 2024시즌에는 지난해 5월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딱 한 번 3안타 경기를 달성했다.

이정후는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바리크 11승을 거둔 밀워키 선발 프레디 페랄타의 시속 151km 3구째 빠른 공을 밀어 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4회에는 내야 뜬공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6회 무사 1루에서 페랄타의 초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우전 안타를 때렸다.

0-0에서 무사 1-2루로 기회를 이어간 이정후는

후속 타자인 윌버 플로레스의 안타 때 홈을 밟았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에만 4점을 뽑는 집중력을 앞세워 이날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이정후는 7회에도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등장, 밀워키의 세 번째 투수 크레이그 요호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6구째를 공략했다.

빛맞은 공은 투수 앞쪽으로 굴렀으나 이정후가 1루에 전력 질주하며 살아 내야 안타가 됐다.

이어 나온 맷 채프먼의 볼넷으로 이정후는 2루까지 갔지만 이후 3루 도루에 실패해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밀워키는 0-4로 뒤진 9회초 2점을 만회하고, 계속 1사 2, 3루 기회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들이 삼진과 내야 땅볼로 잡혔다.

/연합뉴스

LPGA ‘역대급 신인 돌풍’

시즌 8개 대회 중 2개서 신인 우승... 24일 세브론 챔피언십도 기대감

시즌 첫 메이저 대회 개막을 앞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역대급 신인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LPGA 투어 2025시즌은 8개 대회가 끝났는데 중 25%에 해당하는 2개 대회에서 ‘신인 챔피언’이 나왔다.

3월 블루베이 LPGA의 다케다 리오(일본)와 지난주 끝난 JM 이글 LA 챔피언십의 잉리드 린드블라드(스웨덴-사진)다.

특히 LA 챔피언십에서는 단독 2위에 이어이 아키에, 공동 3위에 야마시타 미유(이상 일본) 등 신인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지난해에는 신인 우승자가 아예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신인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셈이다.

LA 챔피언십에 이어 24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에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이 개막하는 만큼 ‘신인 메이저 퀸’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24일 “시즌 초반에 신인 우승자가 2명이나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올해가 10년만”이라고 전했다.

2015년에는 2월 김세영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김효주가 3월 파운더스컵을 제패했다.

특히 김세영은 그해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시즌 3승으로 신인왕에 올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인으로 시즌 2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2015년 김세영(3승), 2017년 박성현(2승), 2022년 지노 티피쿤(태국) 3명이 전부다.

골프다이제스트는 “다케다는 LPGA 투어 비회원이던 2024년 토도 저팬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올해 ‘톱10’ 성적을 세 번이나 냈다”며 “이와 이의 경우 벌써 준우승을 2번 했다”고 이들의 이번 시즌 성적에 주목했다.

신인 시절인 2017년에 우승이 없었던 세계 랭



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인이면 사실 잃을 것이 없다”며 “대회에 나가서 즐기고, 대회에 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진 된다”고 말했다.

코다는 “투어에서는 (신인이 아닌 선수가) 우승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신인들의 활약에 존경심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또 지금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 신인 시절이던 2019년에는 9개 대회에서 8번이나 컷 탈락했던 릴리아 부(미국)는 “너무 스스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며 “안 좋은 샷이 나오면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샷이 나와도 ‘어쩌다 한 번’이라고 여길 뿐이었다”고 돌아봤다.

올해 LPGA 투어 신인은 21명이다. 신인상 부문 1~3위는 모두 일본 선수들이다.

다케다가 341점으로 1위, 야마시타가 230점으로 2위다. 3위는 165점의 이와이다.

한편 윤이나는 신인상 부문 6위(98점)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